

하이클래스군무원

2021. 7. 24.

군무원 시험 9급 국어 해설

— 문정호 교수 —

- 하이클래스 군무원 홈페이지: army.hiclasspass.com
- 문정호 교수 블로그: blog.naver.com/mjh721

© 하이클래스군무원

이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하이클래스군무원과 문정호 교수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

2021년 군무원 국어(9급)

수험번호	성명
------	----

01. 밑줄 친 단어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오늘 이것으로 치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 ② 내노라하는 재계의 인사들이 한곳에 모였다.
- ③ 예산을 대충 겉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시오.
- ④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와 눈길을 부딪치기를 꺼려했다.

02.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만도 하다.
- ② 내가 몇 등일지 걱정이 가득했다.
- ③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 ④ 그는 돕기는 커녕 방해할 생각만 한다.

03. 밑줄 친 ㉠~㉣에 해당하는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목판이 오래되어 ㉠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판목을 다시 만들어 보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 보판 혹은 보수판이라고 한다. 판목의 일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부분을 깎아 내고 대신 다른 나무판을 박아 글자를 새기는 경우가 있다. 이 나무판을 ㉢ 매목이라고 하고, 매목에 글자를 새로 새긴 것을 ㉣ 상감이라고 한다.

- ① ㉠: 毀損 ② ㉡: 保版
- ③ ㉢: 埋木 ④ ㉣: 象嵌

※ 다음은 어떤 사전에 제시된 ‘고르다’의 내용이다.(4~5)

- 고르다1 [고르다]. 골라[골라], 고르니[고르니]. 「동사」 【…에서 …을】 여럿 중에서 가려 내거나 뽑다.
- 고르다2 [고르다]. 골라[골라], 고르니[고르니]. 「동사」 【…을】 「1」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 「2」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 고르다3 [고르다]. 골라[골라], 고르니[고르니]. 「형용사」 「1」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2」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04. 위 사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은 서로 동음이의어이다.
- ②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은 모두 불규칙 활용을 한다.
- ③ ‘고르다 2’와 ‘고르다 3’은 다의어이지만 ‘고르다 1’은 다의어가 아니다.
- ④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은 모두 현재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05. 다음 밑줄 친 ‘고르다’가 위 사전의 ‘고르다 2’의 「2」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워 판판하게 골라 놓았다.
- ② 요즘처럼 고른 날씨가 이어지면 여행을 가도 좋겠어.
- ③ 그는 이제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고 있다.
- ④ 이 문장의 서술어는 저 사전에서 골라 써.

06. 아래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로 옳은 것은?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이다.

- (가) 문학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 한문학에서 ‘문(文)’이라고 하던 것은 ‘시(詩)’와 함께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용적인 글도 적지 않게 포함했다.
- (나) 시대가 변하면서 ‘문’이라는 개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시·소설·희곡이 아닌 것 가운데는 수필이라고 이름을 구태여 따로 붙이는 글만 문학세계의 준회원 정도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 (다) 근래에 와서 사람이 하는 활동을 세분화하면서 무엇이든지 전문화할 때 문학 고유의 영역을 좁게 잡았다.
- (라)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과거의 문학을 재단하지 말고, 문학의 범위에 관한 오늘날의 통념을 반성해야 한다.

- ① (가)문단 뒤 ② (나)문단 뒤
③ (다)문단 뒤 ④ (라)문단 뒤

07.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는 문장으로 옳은 것은?

- ① 아무래도 나 자리 뺏겼나 봐요.
② 오늘 하룻동안 해야 할 일이 엄청나네.
③ 그런 일에 발목 잡혀 번번히 주저앉았지.
④ 저희 아이의 석차 백분율이 1%만 올라도 좋겠습니다.

08. 아래 글의 (㉠)과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접속어로 옳은 것은?

히포크라테스가 분류한 네 가지 기질이나 성격 유형에 대한 고대의 개념으로 성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1884년 《포트나이트리 리뷰》에 실렸던 프랜시스 골턴 경의 논문 <성격의 측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던 골턴은 초기 진화론자로서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 그의 주장이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연 선택 이론이 인간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학설이 될 것이라는 그의 직관은 옳았다.

- | | |
|-------|------|
| ㉠ | ㉡ |
| ① 그래서 | 그리하여 |
| ② 그리고 | 그래서 |
| ③ 그러나 | 따라서 |
| ④ 그런데 | 그리고 |

09. 밑줄 친 단어 중 외래어 표기법이 모두 맞는 문장으로 옳은 것은?

- ① 리모콘에 있는 버튼의 번호를 눌러주세요.
② 벤젠이나 시너, 알코올 등으로 닦지 마세요.
③ 전원 코드를 컨센트에 바르게 연결해 주세요.
④ 썬루프 안쪽은 수돗물을 적신 스폰지로 닦아 냅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0~11)

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生涯엇더흔고
넋사름 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男子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山林에 못쳐 이서 至樂을 못를 짓가
數間茅屋을 碧溪水얹피두고
松竹鬱鬱裏에 風月主人되여서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 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는 夕陽裏에 띄여 잇고
綠楊芳草는 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돌아 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造化神功이 物物마다 현스롭다
(가)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로다
物我一體어니 興이이 다들소나
柴扉에 거러 보고 亭子에 안자 보니
逍遙吟詠하야 山日이 寂寂흔디
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山水구경 가자스라
—정극인, <상춘곡>—

10.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홍진에 묻힌 분’과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다.
- ② ‘나’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이웃’을 끌어들임으로써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④ 서사-본사-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음을 삽입하여 흥을 돋운다.

11. (가)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와 산수자연 사이에 가로놓인 방해물에 대한 불만
- ② 산수자연 속의 모든 존재들과 합일하는 흥겨움의 마음
- ③ 산수자연의 즐거움을 혼자서만 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 ④ 산수자연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한

1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잠자코 앉아 있노라면 한 큼직한 사람이 느릿느릿 돌계단을 밟고 올라와서는 탑을 지나 종루의 문을 열고 무거운 망치를 꺼내어 들었다. 그는 한참동안 멍하니 서서는 음향에 귀를 ㉠ 기울였다. 음향이 끝나자마자 그는 망치를 ㉡ 매어 들며 큰 종을 두들겼다. 그 소리는 산까지 울리며 떨리었다. 우리는 그 ㉢ 종루지기를 둘러싸고 모여 몇 번이나 치는지 헤아려 보았다. 그러면 열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으로 다시 열까지 셀 수 있도록 곧 왼손의 ㉣ 엄지손가락을 곁혔다.

- ① ㉠: ‘기울다’의 피동사이다.
- ② ㉡: ‘매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 ③ ㉢: 접미사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뜻한다.
- ④ ㉣: 가장 짧고 굵은 손가락으로 ‘무지(拇指)’라고도 한다.

13. 다음 로마자 표기법 중 옳은 것은?

- ① 순대 sundai
- ② 광희문 Gwanghimun
- ③ 왕십리 Wangsibni
- ④ 정릉 Jeongneung

14. 대괄호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소리[音聲]의 특징을 알아보자.
- ② 모두가 건물[에, 로, 까지] 달려갔다.
- ③ 이옥과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한다. [이상 전집3 (1958), 235쪽 참조]
- ④ 난 그 이야기[합격 소식]를 듣고 미소 짓기 시작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5~17)

- (가) (㉠)의 확산은 1930년에 접어들어 보다 빠른 속도로 경성의 거리를 획일적인 풍경으로 바꿔 놓았는데, 뉴욕이나 파리의 (㉠)은 경성에서도 거의 동시에 (㉠)했다. 이는 물론 영화를 비롯한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이었다.
- (나) 하지만 뉴욕과 경성의 (㉠)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경성의 모던걸이 입은 패션은 동일해도, 그네들 주변의 풍경은 근대적인 빌딩 숲과 초가집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경성 모던걸의 (㉠)은 이 같은 근대와 전근대의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었다.
- (다) (㉠)은 “일초 동안에 지구를 네바퀴”를 돈다는 전파만큼이나 빨라서, 1931년에 이르면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하던 파자마라는 ‘침의패션’은 곧 바로 서울에서도 (㉠)했다. 서구에서 시작한 (㉠)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는 속도는 너무나 빨라 거의 동시적이었다.
- (라) 폐쇄된 규방에만 있었던 조선의 여성이 신문과 라디오로, 세계의 동태를 듣게 되면서부터,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지구에 매달려 사는 자기 자신에도 큰 파동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규방 여성이 근대여성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미디어를 통해 속성 세계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디어는 식민지 조선 여성에게 세계적인 불안도 함께 안겨 주었다. 자본주의적 근대의 환상과 그 이면의 불안을 동시에 던져 주었던 것이다.
- (마) 근대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에 근대가 잠입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미디어 덕분이었다. 미디어는 근대를 향한 이행을 식민지 조선에 요구했고, 단기간에 조선 사람들을 ‘속성 세계인’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했다.

15. 문맥상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행(盛行) ② 편승(便乘)
③ 기승(氣勝) ④ 유행(流行)

16. 내용에 따른 (나)~(마)의 순서 배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 - (다) - (라) - (마)
② (나) - (라) - (다) - (마)
③ (다) - (나) - (마) - (라)
④ (마) - (다) - (라) - (나)

17.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던걸의 패션은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과 동일했다.
② 신문이나 라디오는 조선 사람이 속성 세계인이 되도록 해 주었다.
③ 파자마 ‘침의패션’은 뉴욕과 할리우드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④ 식민지 조선 여성은 근대적 환상과 그 이면의 불안을 함께 안고 있었다.

18. 다음 밑줄 친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이 모두 고유어인 것은?

- ① 비지땀을 흘리며 공부하는구나.
② 이분을 사랑채로 안내해 드려라.
③ 이렇게 큰 쌍둥뱀을 본 적 있어?
④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0)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 왔다.

“어디 일들 가슈?” / “아뇨, 고향에 갑니다.” / “고향이 어딘데…….” / “삼포라구 아십니까?” /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 고기잡이나 하구 ㉡ 감자나 매는데요.” /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두.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 “뭇땀예요?” / “넌들 아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 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 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 “그럼 ㉢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 “바다 위로 ㉣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뒤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으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19. 문맥적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20. 이 글의 주제를 표현한 시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②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③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④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21. 다음 시의 주된 정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既高 知足願云止

— 乙支文德, <與隋將于仲文> —

- ① 悠悠自適 ② 戀戀不忘
③ 得意滿面 ④ 山紫水明

22. 다음 예문의 밑줄 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집갈 때 혼수를 간소하게 하라는 간절한 요청은
_____ ㉠ _____ 부잣집과 사돈을 맺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었다.

—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

- ①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어서
②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③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④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

23.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차운 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 운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칠백 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노을이어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 많음도
병인 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 조지훈, <완화삼> —

- ① ‘구름, 물길’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내적 현실을 암시한다.
- ② ‘강마을’은 방황하던 서정적 자아가 정착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 ③ ‘나그네’는 고향을 떠남으로써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 ④ ‘한 많음’은 민중적 삶 속에 구현된 전통적 미학에 맞닿아 있는 정서를 대변한다.

24. 다음 한자어의 발음 중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천루(摩天樓) — [마천누]
- ② 공권력(公權力) — [공편녁]
- ③ 생산력(生産力) — [생산녁]
- ④ 결단력(決斷力) — [결판녁]

25. 다음 글의 중심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제 우리는 세계의 변방이 아니다. 세계화는 점점 더, 과거와는 분명 다르게 우리가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인의 예술성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전략’이다. 지금이야말로 세계 시장에 우리의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한국인의 끼는 각별하다. 신바람, 신명풀이가 문화 유전자로 등록되어 있는 민족이다. 게다가 신이 나면 어깨춤 덩실덩실 추던 그 어깨 너머로 쓱 보고도 똑딱 뭔가 만들어낼 줄 아는 재주와 감각도 있고, 문화선진국의 전문가들도 감탄하는 섬세한 재능과 디테일한 예술적 취향도 있다. 문화예술의 시대를 맞은 오늘날, 우리가 먹거리로 삼을 수 있고 상품화할 수 있는 바탕들이 다 갖추어진 유전자들이다. 선진이 선진이고 후진이 후진이면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선진이 후진 되고 후진이 선진 될 때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법이다. 우리 앞에 그런 전환점이 놓여 있다.

- ①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실리감각
- ②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찬 포부
- ③ 냉엄한 국제질서에 따른 각박한 삶
- ④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에 대한 아쉬움

정답 및 해설

01 ②

[난이도 下]

풀이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의 뜻인 동사는 '내로라하다'이다. '내로라하다'(×)

오답

- ① '가름'은 '가르다'의 어간에 '-ㅁ'이 붙은 형태이며, '갈음'은 '갈다(代替)'의 어간에 '-음'이 붙은 형태이다. '가름'은 나누는 것을, '갈음'은 대신하는 것,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각각 '둘로 가름',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로 쓴다. 한글 맞춤법 제57항.
- ③ '걸잡다'는 '쓰러지는 것을 거두어 붙잡다'란 뜻을 나타내며, '걸잡다'는 '걸가랴하여 먼저 어림치다'란 뜻을 나타낸다. 각각 '걸잡을 수 없게 악화한다. 걸잡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다.', '걸잡아서 50만 명 정도는 되겠다.'로 쓴다.
- ④ '부딪치다'는 '부딪다'(물건과 물건이 서로 힘 있게 마주 닿다, 또는 그리 되게 하다.)의 강세어이고, '부딪히다'는 '부딪다'의 피동사이다. 참고로 '부딪치다'는 '부딪히다'를 강조하거나 '어려운 문제나 반대에 직면하다.'의 뜻으로 올바른 표현이다.
- 부딪다: 뒤의 차가 앞 차에 부딪는다. 몸을 벽에 부딪는다.
- 부딪치다: 자동차에 부딪친다. 몸을 벽에 부딪친다.
- 부딪히다(부딪음을 당하다): 자전거에 부딪혔다.
- 부딪치이다(부딪침을 당하다): 자동차에 부딪치이었다.

02 ④

[난이도 中]

풀이 '느커녕'은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느커녕'은 보조사 '느'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말이다.

오답

- ① '척하다'와 '체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말인 보조 동사이므로 띄어 쓴다. 또한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인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② 등급이나 석차를 나타내는 단위인 의존 명사 '등(等)'은 띄어 쓴다. 참고로 '몇'이 '아이들 몇이 더 왔다.'와 같이 수사인 경우는 뒤의 조사와 붙여 쓰고, '친구 몇 명이 함께 어울려 지낸다.'와 같이 관형사인 경우는 뒤의 명사와 띄어 쓴다.
- ③ '알'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03 ②

[난이도 上]

풀이 ㉠에는 '마루 앞에 임시로 잇대어 만든 자리에 쓰이는 널조각.'의 뜻인 '보판(補 기울 보, 板 널빤지 판)'이 적절하다. 이 경우 '보계판(補階板)'과 같은 말이다.

- '보판(保 보관할 보, 版 널조각 판)'은 '인쇄판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 둠.'의 뜻으로 '도둑들은 철값이 오르자 시가 보판하고 있던 철제 인쇄판을 훔쳐내기까지 하였다.'로 쓴다.

오답

- ① 훼손(毀 헐 훼손, 損 더 손):
「1」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함. 「2」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듦.
- ③ 매목(埋 묻을 매, 木 나무 목): 「1」 오랫동안 흠이나 물속에 파묻혀서 화석(化石)과 같이 된 나무. 「2」 나무를 깎아서 만든 켜기. 재목 따위의 갈라진 틈이나 구멍을 메우는 데 쓴다.
- ④ 상감(象 형상 상, 嵌 박아넣을 감): 금속이나 도자기, 목재 따위의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겨서 그 속에 같은 모양의 금, 은, 보석, 뼈, 자개 따위를 박아 넣는 공예 기법.

04 ④

[난이도 下]

풀이 형용사는 현재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형은 현재형이다. 용언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는다 / -나다'와의 결합이 가능하면 동사이고, 결합이 불가능하면 형용사이다. '고르다 3'의 예로는 '치아가 고르다.'; '음정이 고르다.'인데 현재진행형 표현인 '고르는 중이다'(×) 또는 '고르는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오답

- ①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은 각각 다른 표제어로 사전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② '고르다'는 어간의 끝소리 '으'가 탈락 하면서 '르'이 덧생기는 '르' 불규칙 활용 단어이다.
- ③ '고르다 2'와 '고르다 3'은 각각 「1」과 「2」의 다의어가 존재하지만 '고르다 1'은 '여럿 중에서 가려 내거나 뽑다.'의 뜻만 있어 다의어가 아니다. 이 문제를 '고르다 2'와 '고르다 3'이 서로 다의어 관계인 것으로 이해했다면 문제를 잘못 본 것이다. '고르다 2'와 '고르다 3'은 다의어가 존재하므로 각각 다 의어라고 볼 수 있다.

05 ③

[난이도 中]

풀이 '고르다 2'의 「2」 사례로는 '벗을 고르다.'; '줄을 고르다.'; '그는 목소리를 고르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있다. '고르다 2'의 「2」 '숨을 고르다'의 경우 '고르다 3'의 「2」 '숨결이 고르다.'; '음정이 고르다.'와 헷갈릴 수 있으나, '고르다 2'는 동사이고 '고르다 3'은 형용사이므로 품사의 유무로 구별할 수 있다. 또한 '고르다 2'의 「2」는 '손질하다'의 뜻이며 '고르다 3'의 「2」 '순조롭다'의 뜻이다.

오답

- ① '고르다 2'의 「1」, ② '고르다 3'의 「2」, ④ '고르다 1'의 「1」

06 ①

[난이도 中]

풀이 (가)는 문학의 범위를 넓게 보았던 과거의 상황이고, (나)는 시대가 변하면서 문학의 범위를 좁게 보는 (가) 이후의 상황이다. 문학의 범위를 좁게 보는 내용을 (나)에서 처음 언급했으므로 제시문은 (나)의 앞에 와야 한다. (다)는 문학을 전문화하면서 문학의 영역이 좁아졌다고 언급했으므로 (나)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라)는 앞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명했다. 해당 지문은 조동일 교수의 저서 《한국문학통사》의 일부분이다. 제시문의 일부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정답을 ②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글의 흐름으로 보아도 (나)의 앞이 맞고 원문을 살펴봐도 정답은 ①이 가장 적절하다.

07 ④

[난이도 中]

풀이 ‘백분율’(%)은 올바른 표현이다. 한글 맞춤법 제11항에 따라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 ‘률’은 ‘열’, ‘율’로 적는다.

일반적인 적기	합격률(合格率), 인상률(引上率), 경쟁률(競爭率), 입학률(入學率)
모음이나 ‘ㄴ’ 받침 뒤	규율(規律), 실패율(失敗率), 백분율(百分率)

오답

- ① ‘남의 것을 억지로 제 것으로 만듦’의 뜻인 ‘빼앗다’의 준말은 ‘뺏다’이고, ‘빼앗다’의 피동사인 ‘빼앗기다’의 준말은 ‘뺏기다’이다. ‘뺏기다’의 과거형인 ‘뺏기었다’의 준말은 ‘뺏겼다’이므로 ‘뺏겼나 봐요’(○)로 써야 올바른 표현이다.
- ② ‘하룻동안’(×)은 합성어가 아니다. ‘하루▽동안’으로 띄어서 구(句)의 형태로 써야 한다. 참고로 ‘오랫동안[오래동안/오랜동안]’, ‘하룻저녁[하루저녁/하룻저녁]’, ‘하룻날[하루날]’은 합성어로 하나의 단어가 된다.
- ③ ‘번번이’(○)가 맞다.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라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에는 ‘-이’를 붙인다.

예 간간이, 겹겹이, 골골살살이, 곳곳이, 길길이, 나날이, 달달이, 땀땀이, 뉘뉘이, 번번이, 살살이, 알알이, 앞앞이, 줄줄이, 째뼉이, 철철이

08 ③

[난이도 中]

풀이 초기 진화론자인 골턴을 소개한 내용이 ㉠의 앞이다. 골턴은 초기 진화론자이기는 하지만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 때문에 골턴의 주장은 오늘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골턴의 주장은 ㉠ 뒤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 ㉡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은 앞의 내용과 반대이거나 전환인 ‘그러나’와 ‘그런데’가 적절하고, ㉣은 원인과 결과의 ‘그리하여’, ‘그래서’, ‘따라서’가 적절하다. 정답으로 모두 올바른 것은 ③이다.

09 ②

[난이도 中]

풀이 ‘벤젠(benzene)’, ‘시너(thinner)’, ‘알코올(alcohol)’은 맞고 ‘벤젠’(×), ‘씨너’(×), ‘알콜’(×)은 틀리다.

오답

- ① ‘리모콘’(×) → ‘리모컨’(○), ‘버턴’(×) → ‘버튼’(○)
- ③ ‘컨센트’(×) → ‘콘센트’(○)
- ④ ‘썬루프’(×) → ‘선루프’(○), ‘스폰지’(×) → ‘스펀지’(○)

10 ②

[난이도 上]

풀이 이 작품은 ‘나’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시인은 벽계수 옆의 ‘수간모옥’에 있다가 ‘시비(柴扉: 사람문)’와 ‘정자(亭子: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를 거쳐 이동하며 밖으로 나온다. 작품 <상춘곡>의 전체 내용은 ‘수간모옥’, ‘들판’, ‘시냇가’, ‘산봉우리’로 이동하지만 제시문은 작품의 일부만을 수록했다. 정극인의 가사 <상춘곡>을 공부했다면 정답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작품을 미리 해석하지 못했던 수험생들을 어려웠을 것이다. 작품의 한자에 한글 표기를 하지 않았고 원문대로 옛글 표기를 했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오답

- ① ‘홍진에 묻힌 분’에게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말을 건네고는 있으나 서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은 아니다. 이 작품에는 문답의 형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 ③ 이웃들에게 산수 구경을 갈 것을 권유하며 이웃들을 자신의 흥취에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봄의 경치를 즐기는 시인의 아름다움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화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여음(餘音)은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구절이나, 감탄사를 반복 사용하여 조흥구를 만드는 구절을 말한다. 이 작품에는 여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 지문 해석

세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과, 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고? 옛 사람의 풍류를 따를 것인가 못 따를 것인가? 천지간 남자의 몸이 나와 같은 사람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히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다는 말인가? 초가삼간을 시냇물 앞에 두고, 소나무와 대나무 울창한 속에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옛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저녁 햇살 속에 피어 있고, 푸르른 버들과 꽃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오래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조물주의 신비한 공덕이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못이키어 소리마다 아양떠는 모습이로다.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 흥이 이와 다르겠는가? 사립문 앞을 이리저리 걸어도 보고, 정자에 안자도 보니,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조려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한 가운데 맛보는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없이 혼자로다. 여보시오. 이웃 사람들과. 산수 구경 가져구나.

11 ②

【난이도 中】

풀이 해당 부분을 해석하면,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못이기에 소리마다 아양떠는 모습이다.’이다. (가)는 시적 자아의 춘흥(春興)을 자연물인 ‘새’에 이입하여 표현한 구절로, 춘흥의 극치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화자가 산수자연 속의 새와 합일하는 흥겨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의 다음 내용에서 ‘物我一體’를 통해 합일하는 흥겨움을 알 수 있다.

오답

- ① (가)에는 방해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에서 드러나는 내용이다.
- ④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오히려 ④의 내용과 반대로 화자는 자연과 교감하며 자연에 몰입하고 있다.

12 ①

【난이도 中】

풀이 ‘기울이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먼저 ‘비스듬하게 한쪽을 낮추거나 비뚤게 하다.’의 뜻은 기울다의 사동사이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다.’와 같이 쓴다. ㉠은 ‘기울이다’의 두 번째 뜻으로, ‘정성이나 노력 따위를 한곳으로 모으다.’의 의미이다. ㉡이 ‘기울다’의 사동사는 아니지만 ‘기울다’의 피동사가 될 수는 없다.

오답

- ②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는 ‘매다’이다. ㉢은 ‘매다’의 활용형인 ‘매어’로 표기해야 한다. 참고로 ‘매다’는 ‘끈을 매다.’와 같이 ‘뉘다, 마디를 만들다.’의 뜻에 쓴다.
- ③ ‘-지기’는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문지기, 산지기, 청지기’와 같이 쓴다.
- ④ 다섯 손가락 가운데 첫째 손가락인 ‘엄지손가락’은 한자어 ‘무지(拇指)’, ‘대무지(大拇指)’, ‘대지(大指)’, ‘벽지(擘指)’와 같은 뜻이며, 우리말 ‘엄지손’과 같은 뜻이다.
 - 무지(拇) 엄지손가락 무, 指 가리킬 지

13 ④

【난이도 下】

풀이 ‘정릉(貞陵)’은 [정능]으로 발음하고 표준 발음에 따라 ‘Jeongneung’으로 적는다.

오답

- ① ‘순대’의 ‘ㅅ’는 ‘ae’로 적는다. ‘sundae’(○) ‘순대’는 일반 명사이므로 첫글자를 소문자로 적는다.
- ② ‘광희문’은 [광히문]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Gwanghuimun’(○)으로 적는다. ‘-’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무조건 ‘ui’로 적는다.
- ③ ‘왕십리’는 [왕심리]로 발음하기 때문에 ‘Wangsimni’(○)로 적는다.

14 ②

【난이도 中】

풀이 명사 ‘건물’에 사용할 조사 중 ‘에, 로, 까지’를 선택하는 문장이므로 이 경우는 중괄호 ‘{ }’를 쓴다.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나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는 중괄호를 쓴다. ‘[]’는 대괄호이다.

- 모두가 건물{에, 로, 까지} 달려갔다.(○)

참고로 중괄호 안에 열거된 항목들은 선택표로 구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빗금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예 할머니가 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었, 겠]다.

할머니가 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는/었/겠]다.

오답

- ①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는 대괄호를 쓴다.
 - 예** 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 참고로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한자로 쓰지 않고 한글로 써서 보일 때도 대괄호를 쓴다. **예** 나이[연세], 낱말[단어]
- ③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대괄호를 쓴다. 연도 표기인 ‘(1958)’의 바깥쪽 괄호로 대괄호를 썼다.
- ④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는 대괄호를 쓴다. ‘그 이야기’가 ‘합격 소식’임을 알려주기 위해 대괄호를 썼다.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괄호 대신 소괄호를 쓰기도 해서 복수 정답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④는 정답이 될 수 없다.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대괄호 사용의 추가 설명을 본다면, 대괄호는 주로 문장이나 단락처럼 비교적 큰 단위와 관련된 보충 설명을 덧붙일 때 쓰이지만, 소괄호는 문장보다 작은 단위와 관련된 보충 설명을 덧붙일 때에도 잘 쓰인다고 설명했다. ‘합격 소식’은 단어가 아닌 문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괄호보다 대괄호가 더 적절하다.

15 ④

【난이도 下】

풀이 ㉠에 모두 들어갈 단어는 ‘유행(流行)’이다. 뉴욕과 파리의 유행이 1930년대 경성에도 유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 유행(流 흐를 유, 行 다닐 행):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짐. 또는 그런 사회적 동조 현상이나 경향.

오답

- ① 성행(盛 성할 성, 行 다닐 행): 매우 심하게 유행함.
- ② 편승(便 편할 편, 乘 탈 승): 남이 타고 가는 차편을 얻어 타. 세태나 남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거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기승(氣 기운 기, 勝 이길 승): 성미가 억척스럽고 굳세어 좀처럼 굽히지 않음. 또는 그 성미. 기운이나 힘 따위가 성해서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음.

16 ③

[난이도 中]

풀이 (나)는 ‘하지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글의 시작이 될 수 없다. 물론 글의 일부를 가져와 실었다면 (나)를 시작 단락으로 볼 수도 있으나, (나)는 (다)와 대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의 시작으로 볼 수 없다. (마)는 유행의 요인으로 미디어를 처음 소개하기 때문에 (라)의 앞에 오지만 글의 처음이 될 수 없다. (가)에서 유행의 확산이 영화와 근대 과학기술 때문임을 소개했기 때문에 (가) 뒤에는 (나)가 이어져야 한다. (나)는 당시의 유행이 빨랐다는 것을 설명했다. (나)는 (다)와 대조되는 내용을 제시하여 경성 모던걸의 유행의 아이러니를 설명했다. (마)는 유행의 요인인 미디어를 소개했고, (라)는 근대여성이 미디어를 통해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17 ③

[난이도 中]

풀이 (다)를 보면 서구에서 시작한 유행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었다고 설명했다. 할리우드에서 유행한 파자마라는 ‘침의패션’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침의패션이 뉴욕과 할리우드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

- ① (나)에서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경성의 모던걸이 입은 패션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 ② (라)에서 근대여성이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미디어를 통해 속성 세계인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④ (라)에서 미디어는 식민지 조선 여성에게 세계적인 불안도 함께 안겨주었다고 설명했다. 근대 조선 여성은 자본주의적 근대의 환상과 그 이면의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18 ①

[난이도 中]

풀이 ‘비지’와 ‘땀’이 모두 고유어이며 ‘비지땀’은 합성어이다. ‘비지’는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뜻하는 말인데, ‘비지땀’은 비지를 만들기 위해 콩을 갈아서 형겅에 써서 찐 때 나오는 콩물처럼 많이 흘리는 땀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다.

오답

- ② 사랑채(舍廊채): 사랑으로 쓰는 집채.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쳐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의 뜻인 ‘사랑(舍 집 사, 廊 복도 랑)’이 한자어이다. ‘사랑채’는 ‘구분된 건물 단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채’가 붙은 파생어이지만 문제의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 ③ 쌍둥밤(雙童밤): 한 겹데기 속에 두 쪽이 들어 있는 밤. ‘한 어머니에게서 한꺼번에 태어난 두 아이.’의 뜻인 ‘쌍둥(雙 쌍, 童 아이 동)’이 한자어이다.
- ④ 장작불(長斫불): 장작으로 피운 불. ‘통나무를 길쭉하게 잘라서 쪼갠 뿔나무.’의 뜻인 ‘장작(長 길 장, 斫 벨 작)’이 한자어이다.

19 ④

[난이도 中]

풀이 정 씨는 자신의 고향인 삼포가 아직도 십 년 전의 모습일 것이라 상상한다. 십 년 전에 정 씨가 경험한 삼포는 고기잡이하고 감자를 캐며 나룻배로 이동을 하는 산업화 이전의 모습이지만, 노인이 알려주는 최근의 삼포는 산업화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다. 삼포의 바다는 방둑을 쌓고 트럭이 돌을 실어 나르며 관광 호텔을 짓고 있다. ㉠, ㉡, ㉢이 산업화 이전 삼포의 모습을 나타내는 소재라면 ㉣은 산업화 이후 삼포의 모습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신작로(新作路): 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새로 낸 길을 이르는 말.

20 ③

[난이도 中]

풀이 1973년 작품인 소설 <삼포 가는 길>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고향을 상실한 민중들의 궁핍한 삶과 그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연대 의식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정 씨가 생각했던 추억 속의 고향은 산업화 인해 개발되어 과거의 모습을 잃었다.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내용은 ③이다.

참고 <삼포 가는 길>

이 작품은 근대화의 물결이 드세게 일었던 1970년대의 우리 농촌 사회를 배경으로, 막노동자인 노영달과 정 씨, 작부인 백화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 함께 길을 걷게 되는 이들은 모두 근대화의 그늘 속에서 ‘뿌리 뽑힌 자’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를 바가 없는 처지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인물들이 길에서 만나 서로 의지하며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 이들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훈훈한 인간애(人間愛)가 나타난다.

- 갈래: 단편 소설
- 배경: 1970년대 초의 어느 시골
- 경향: 여로 소설
- 성격: 사실적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표현: 1970년대 산업화가 초래한 고향 상실의 아픔을 형상화함.

21 ③

[난이도 上]

풀이 이 작품은 고구려의 명장(名將)인 을지문덕이 수(隋)나라의 30만 대군을 맞아 살수에서 싸울 때에 적장(敵將)인 우중문(于仲文)에게 조롱조(嘲弄調)로 지어 보낸 한시(漢詩)이다. 5언 고시의 한시이므로 작품을 기승전결로 나누면, 기구(起句)와 승구(承句)는 대구(對句)로 되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우중문의 신기(神奇)한 책략과 기묘한 계획을 잔뜩 칭찬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그보다 훨씬 낫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당시 을지문덕은 하루에 7번을 싸워 거짓 패하면서 적군을 평양성 북쪽 30리 지점까지 유인하여 크게 이겼다. 이 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중문에게 보낸 것이므로, 전구(轉句)에 쓰인 ‘旣(이미)’라는 글자에는 이제 상대가 이길 기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가 짙게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는

만약 싸움을 그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결구(結句)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자의 정조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득의만면(得意滿面)’이다.

- 득의만면(得 얻을 득, 意 뜻 의, 滿 찰 만, 面 낫 면):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기쁜 표정이 얼굴에 가득함.

오답

- ① 유유자적(悠 멀 유, 悠 멀 유, 自 스스로 자, 適 갈 적):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
- ② 연연불망(戀 사모할 연, 戀 사모할 연, 不 아닐 불, 忘 잊을 망): 그리워서 잊지 못함.
- ④ 산자수명(山 뫼 산, 紫 자주 빛 자, 水 물 수, 明 밝을 명): 산은 자줏빛이고 물은 맑다는 뜻으로, 경치가 아름다움을 이르는 말.

참고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 을지문덕(乙支文德)

그대의 신기(神奇)한 책략(策略)은 하늘의 이치(理致)를 닮았고,
오묘(奧妙)한 계획(計劃)은 땅의 이치를 닮았노라.
전쟁(戰爭)에 이겨서 그 공(功) 이미 높으니,
만족(滿足)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既高 知足願云止

- * 神策(신책): 신기하고 기묘한 책략
- * 究天文(구천문): 천문을 궁구함, 하늘의 운수를 꿰뚫어 앎.
- * 妙算(묘산): 기묘한 헤아림과 꾀
- * 窮地理(궁지리): 지리를 통달함.
- * 功既高(궁기고): 공이 이미 높음.
- * 知足(지족): 만족함을 앎.
- * 願云止(원운지): 그친다고 말하기를 원하다.

- 지은이: 을지문덕
- 갈래: 오언고시(五言古詩)
- 연대: 고구려 제26대 영양왕 때
- 구성: 기·승·전·결의 4단 구성
- 주제: 적장의 오판 유도, 적장 회롱
- 의의: 현전하는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한시
- 출전: 《삼국사기》 권44, 열전 제4 을지문덕

22 ①

【난이도 중】

- 풀이 시집갈 때 신부 집안은 혼수를 간소하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신랑 집안에 이러한 뜻을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 또 한 신부 집안이 부잣집과 사돈을 맺을 때는 혼수를 더 화려하게 해야 하겠지만 현실을 그렇게 하기 어렵다. 문맥과 가장 어울리는 속담은 ①이다.
-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 감히 청하지는 못하였으나 본래 바라고 있던 바를 뜻하는 속담.
- 불감청(不 아닐 불, 敢 감히 감, 請 청할 청): 마음속으로는 간절하지만 감히 청하지 못함.
- 고소원(固 굳을 고, 所 바 소, 願 바랄 원): 본디부터 바라던 바.

오답

- ②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기본이 되는 것보다 덧붙이는 것이 더 많거나 큰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한 개 더 준다): 아이들 버릇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에게 당장 좋게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해로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

23 ①

【난이도 중】

- 풀이 이 시에서 ‘구름’과 ‘물길’은 유랑하는 ‘나그네’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시어이다. ‘구름 흘러가는’은 유랑하는 나그네를 의미하고, ‘물길은 칠백 리’는 나그네의 길고 긴 방랑의 여정을 의미한다.

오답

- ② ‘강마을’은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술이 익는 곳이다. ‘나그네’가 자연과 동화된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와 후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소재이다. 시적 자아가 바라보는 공간일 수는 있으나 정착하려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 ③ ‘나그네’가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 연에서 나그네는 다정(多情)과 다한(多恨)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자연과 어우러져 방랑하고 있다.
- ④ ‘한 많음’에 전통적 미학의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다. 마지막 연에서 ‘다정하고 한 많음’을 보면 ‘다정(多情)’과 ‘한 많음’은 나그네가 본래 지니던 정서이며 숙명이다. 방랑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나그네에게 ‘한 많음’은 오히려 ‘병인 양’ 여길 수 있는 괴로움이다. 우리 민중의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이나 ‘한’의 내적 승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도 복수 정답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해당 문제가 ‘가장 옳은 것’을 골라야 하기에 정답이 될 수 없다. ‘한 많음도 병인 양 하여’를 언급했다면 나그네가 자신에게 주어진 ‘한’을 숙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통적 정서로 볼 수 있으나 ‘한 많은’만을 언급한다면 전통적 정서로 볼 수 없다.

참고 조지훈, <완화삼(玩花衫)－목월(木月)에게>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애상적, 전통적
- 제재: 유랑하는 ‘나그네’의 삶
- 주제: 밤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애수
- 특징: 전통적인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남.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출함.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함.
- 해설: <완화삼(玩花衫)－목월(木月)에게>는 유랑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애상적으로 그려 낸 시이다. 또한 이 시는 시인이 박목월에게 보낼 것을 염두에 두고 쓴 시이다. 박목월 시인은 <완화삼>의 답시 <나그네>를 썼다.

24 ① [난이도 中]
풀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아주 높은 고층 건물.'의 뜻인 '마천루(摩天樓)'는 [마철루]로 발음한다.

참고 표준발음법 제20항 유음화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탄녁], 공권력[공권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뵤노], 구근류[구근뉴]

25 ② [난이도 下]
풀이 제시문은 미래 세계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희망과 포부를 주장한 글이다. 한국인의 예술성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므로 우리만의 전략으로 세계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글이다.

2021.7.24. 9급 총평

	유형	19		20	21	계	비율
		1차	2차				
1	문학	5	7	3	5	20	20%
2	문법	4	4	4	1	13	13%
3	비문학	2	2	4	5	13	13%
4	어문 규정	10	9	4	6	29	29%
5	어휘		2	1	3	6	6%
6	관용어, 속담				1	1	1%
7	한자어, 한자		1	2	2	5	5%
8	한자 성어	1		1	1	3	3%
9	고전문법	2		1		3	3%
10	어법, 생활 국어	1		5	1	7	7%
계		25	25	25	25	100	100%

군무원 국어 문제를 공개한지 두 번째 해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여기서 평이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군무원 9급 국어 문제와 비교했을 때 평이하다는 것이다. 이번 시험 자체만 놓고 보면 어려운 문항들이 몇 문제 있었고, 이 문제들 때문에 당황한 수험생은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 침착한 마음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 갔다면 일부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시험 후 만난 수험생들의 입장은 이와 달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총평을 보고 2022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기출을 확인하고 하나씩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0년 문제를 공개하면서 특정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출제하고 있다. 과거에는 문법과 어문규정을 집중적으로 출제했는데 이번 시험은 어문규정을 줄이고 어법과 화법(생활국어, 언어예절 등)을 출제했다. 물론 2020년 시험과 비교하면 어문규정에서 2문제가 더 출제되었다. 상대적으로 문법 문제 비율이 줄었지만, 문법 공부를 바탕으로 어문규정 공부하기 때문에 여전히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 문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한자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문제도 어려웠다.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별해야 하는 문제, 한시의 작가인 을지문덕을 읽었어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군무원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한자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한다. 언제나 드리는 조언으로 “한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길 바란다.

문학에서는 지식형 문제보다는 작품을 스스로 감상하고 이해하는 문제를 주로 출제했다. 이러한 경향은 군무원 국어 7급도 마찬가지이며 군무원 국어 시험의 특징이기도 하다. 지문이 포

함된 문제는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정답을 찾아야 한다. 공개된 정답으로 가채점을 한 수험생들은 자신의 가채점이 정확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문규정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론문법 문제는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론문법, 어문규정, 고전문법, 어법’이 모두 문법으로 통합되는 공부라는 면에서 여전히 군무원 국어 시험은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문법 공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주목할 만한 문제는 5번 ‘고르다’의 문맥적 의미, 14번 대괄호 사용 문제, 18번 합성어 구별 문제, 21번 한시와 한자성어 문제, 23번 <완화삼> 감상 문제 등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자와 관련된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 먼저 많은 수험생들이 오류로 지적하는 14번 대괄호 사용 문제와 23번 <완화삼> 감상 문제는 오류로 볼 수 없다. 해설에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으니 읽어 보기를 바란다. 나머지 중에서 한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려웠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고, 나머지는 헛갈릴 수 있으니 주목해야 한다. 모두 해설에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

군무원 국어 시험은 과거와 달리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공부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주었다. 군무원 국어 시험에 어문규정이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많이 당부했다. 2020년부터 ‘필기 50% + 면접 50%’가 최종합격이 되었으므로 필기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거듭 말하지만 이제 군무원 국어 시험은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었다. <하이클래스군무원 학원>을 믿고 시험을 준비한다면 합격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